

송원고 입학 전형, 교육감 직권 공고 검토

광주교육청 자사고 전제조건 '성적 제한 폐지' 강행 시사 의회 교육위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 불신·불통 질타 "실험적 정책에 학생만 피해"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거세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신입생 전형요강을 교육감 직권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과 학부모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적 제한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송원고가 13일까지 내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감 직권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학 공고일까지(전형요강)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인가"라는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승인을 얻어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송원고에 재지정 전제조건을 맞게 두차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기일이 지나면 교육감이 직권으로 공고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성적 제한 폐지'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형요강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교육감이 직접 공고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송원고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자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내렸다"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바꿀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장 교육감은 "지정 연장 과정에서 몇 가

지 보완할 점을 학교에 제시했는데 논란이 된 신입생 전형방식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학교에 요구한 것이다"며 "이제는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교육행정 불신과 불통에 대해 질타했다.

이은방 의원은 "자사고 정책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다른데 광주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학교·학부모와 협의해 성적 제한을 50%로 완화하고 2년 뒤 재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자 의원은 "현재 재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방점을 세워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변화가 있다면 먼저 학교와 학부모·시민을 상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육청의 조건부 재지정은 누가 봐도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며 "장 교육감은 솔직하게 자신

의 교육철학에 따라 자사고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송원고 학부모와 지역 교육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들은 지난 8일부터 매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또 11일 교육부를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는 교육감 개인의 선거공약이나 실험적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자사고 폐지는 교육사적에 대한 신뢰 추락, 지방교육 붕괴, 우수인재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1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의 자사고 업무추진 보고에서 이은방 의원이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항소심사...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태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가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활동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김범수 친척집서 권총 5정·현금 15억 발견

유병언씨 도피자금 여부 수사

김범수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가동복음침례교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범수'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권총 5정과 현금 15억을 발견했다. 김명숙은 해당 현금봉지가 담긴 가방에 순천 별장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과 같은 번호 피지가 붙은 점으로 미루 유씨의 도피자금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권총의 유통 경로를 쫓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현상 2차장검사)은 최근 경기도 소재 김씨의 친척 A씨의 자택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권총 5정과 15억원의 현금 봉지가 담긴 여행용 가방 5개를 발견했다. 권총 5정은 '7번'이라고 적힌 피지가 붙은 가방에 들어있었으며 실탄은 장전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총탄으로 보이는 구형 형태의 탄환과 금속관 납덩어리 수십 개가 같은 가방에서 발견됐다. 검찰로부터 권총 지원확인을 요청받은 경찰은 5정 중에 사격선수가 쓰는 공기권총 1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총기는 가스총 2정과 구식 권총 2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찰 수사관들이 방문해 권총을 보여주고 제원확인을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들이 권총 중 한정이 사격선수가 쓰는 4.5mm 공기권총인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권총의 입수 경위와 함께 현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를 다시 불러 권총 입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6학년도 전문대 모집인원 6900여명 감소

전문대교협, 전형 계획 발표

대학교조조정위의 영향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보는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에서 총 모집인원이 6900여명 감소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11일 발표했다.

2016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21만9180명으로 전년에 비해 6905명(3.1%) 감소한다. 정부의 대학교조개혁 정책에 따른 자율 정원 감축으로 전문대 모집인원이 2015학년

도에 4.8% 줄어든 것까지 포함하면 2016학년도 모집인원은 2014학년도 대비 1만 8244명(7.7%) 감소한다.

시기별로 수시 모집에서 18만2297명(83.2%)을, 정시에서는 3만6883명(16.8%)을 선발한다. 수시는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자체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이 10만913명(55.4%)으로 가장 많고, 정시는 일반전형에서 가장 많은 2만4920명(67.6%)을 모집한다.

4년제 간호과는 58개교에서 1만1261명을 선발한다. 입학전형은 학교생활기록

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 실기, 서류 중 2개만 활용된다. 핵심 전형요소별로 보면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79.8%),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54.5%)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학업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생 평가 시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는 '비교 입학전형'으로 21개 대학에서 1845명을 선발해 실시 대학은 6개교, 모집인원은 54명 늘어난다.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은 국어, 수학 영역에서 A/B형 모두 반영하고, 26개교의 일부 학과에서는 B형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농산어촌 출신, 저소득층,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 기회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은 3만2115명이다. /연합뉴스

윤일병 사건 구속 피고인들 제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관할 이전에 따라 구속 피고인들이 11일 제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됐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을 태운 호송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주 28사단을 출발, 10시 40분경 용인과 안양 등 3군사령부 예하부대 2곳에 각각 나눠 도착했다.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 동거녀 쾌짌해" 원룸 침입하고 차 몰고 달아난 30대 '달미'



○...전 동거녀가 사는 원룸에 침입, 옷 등을 훔친 뒤 이모가 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차를 몰래 타고 간 30대가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허모(37)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 3시 광주시 서구 양동 A원룸에 사는 박모(아·25)씨의 현

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옷·노트북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박씨의 승용차가 A원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것을 알고 자동차를 몰래 타고 갔는데, 경찰에서 "지난 3월 초 박씨의 헤어핀 뒤 쾌짌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백희준 수기자 bhj@kwangju.co.kr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북구 우산동 안보화만 사거리 무동 장례식장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①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1층 100평(전용 70평)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5천 월 보증금 2천 월 200만원

②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 APT 단지형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③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④커피숍 급매매(중심사 중심도로 1층)

1층입대 약 80평 시설완비 최고위주 성황리 영업중

식사 및 커피전문점

참신한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분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800만 매가 8억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21개 (1층 상가, 룸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18개 (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원룸(3억~20억) 다량 있습니다.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수익 1억1천)

010-6832-97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하드립니다.

근린시설

-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토지1735㎡, 건2303㎡) 감정 30억6, 최저21억(유통마트적합)
- 서구지평동 상무지구 근린시설(토지1599㎡, 건17380㎡) 감정 223억, 최저223억(상무지구 중심가)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토지4756㎡, 건1478㎡) 감정 276억, 최저276억(상무지구)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토지951㎡, 건2652㎡) 감정 26억, 최저11억(신안사거리 대로변)
- 북구 오치동 근린시설(토지338㎡, 건659㎡) 감정 5억, 최저5억(오치대로변)
- 북구 대인동 근린시설(토지780㎡, 건1992㎡) 감정 24억, 최저17억(대인동 대로변)

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토지112㎡, 건200㎡) 감정 3억8천, 최저1억1천(두암동)
- 북구 유동 근린주택(토지229㎡, 건608㎡) 감정 1억6천, 최저2억6천(유동 대로변)
- 동구 충장로 근린주택(토지155㎡, 건454㎡) 감정 3억4천, 최저1억9천(충장로 530코너)
- 북구 오치 근린주택(토지69㎡, 건114㎡) 감정 1억6천, 최저7천4백(오치동)
- 북구 운암동 근린주택(토지69㎡, 건114㎡) 감정 7천2백, 최저5천(운암동)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토지138.8㎡, 건202㎡) 감정 2억4천, 최저1억7천(신안동)

호텔

- 광산구 쌍암동 호텔(토지1182㎡, 건2289㎡) 감정 32억, 최저22억(쌍암동 코너)

대지

- 동구계림동 대지(토지511㎡) 감정 6억9천, 최저3억8천(광주공단터)
- 광산구 소촌동 대지(토지1956㎡) 감정 20억, 최저14억(광속간도로, 송정역 부근)

경매 직원구함, 부동산 직원구함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 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향, 설계, 부동산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등산로 중심도로 점)

보3천 월300만 시설완비 최고시설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 3층) 85평 신안은행 뒤, 모야엘가 A 상가임 매가 7억3천5천 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 3층) 62평 롯데마트 옆 서 하남 공단 쪽매가 2억5천 보2천 월 150 용9천
- 삼천지구 상가매매2층(대성오션스파) (6층 2층) 62평 부영 APT임 매가 1억7천 보1천 월70 용9천
- 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 2억5천 토지 205평 건 135평 용 1억2천
-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동경기장 쪽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천역 1번 출구 2층 (물수리 전체제품 신규교체 임대료로, 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 보200 월27 용1천
-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임) 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사비없음)
-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립)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8천 ②10평(수립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 북구 우산동 사우나 건물 7층 (대96, 건564) 수익 900 매11억
- 광산구 오름동 8층 건물(대500천, 건 700) 1층 상가 120평 룸 58개 월수익 2500 매가 35억
- 신축원룸 4층 북구 용봉지구 룸 21개 월수익 8001층상가 2, 4층 주민주택 매가 11억8천
- 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전대정문 2분) 룸 121층 점포1칸,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주)수아 062)521-1060